



# 『저리가, 알프레드!』

내 곁에도 알프레드가 있을까요?



# 활동 순서

● 관련 성취기준 및 활동 전 안내 사항

1 활동 1. 알프레드와 소니아 이야기

2 활동 2. 내 곁에도 알프레드가 있나요?

3 활동 3. 세계 속의 알프레드, 난민

# 관련 성취기준 및 활동 전 안내

## 활동 추천 학년: 5-6학년

### <관련성취기준>

[6국02-03]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6도02-02]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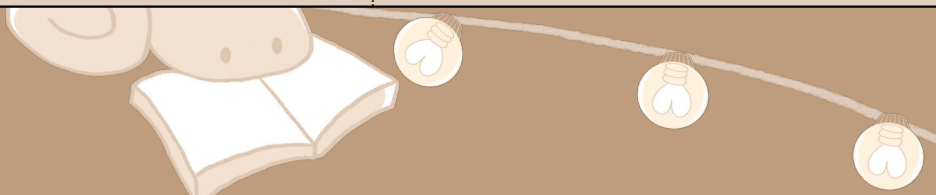
[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를 조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 관련 성취기준 및 활동 전 안내

## 활동 흐름 한눈에 보기

차시	활동명	활동내용	관련 성취기준
<b>활동 1</b> [책 속으로]	알프레드와 소니아 이야기	내용 이해, 인물의 마음 공감하기	[6국02-03]
	뒷이야기 그려보기	글의 뒷이야기 상상하기	
<b>활동 2</b> [나의삶으로]	내 곁에도 알프레드가 있나요?	나와 다른 점을 가진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기	[6국05-06] [6도02-02]
	내가 소니아라면?	나와 다른 점을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 생각해보기	
<b>활동 3</b> [너의삶으로] ★심화★	세계 속 알프레드, 난민	난민에 대하여 조사하기	[6사08-06] [6도03-04]
	난민 친구와 편팔 맺기	세계 시민으로서 태도 생각해보기	



# 선생님께 드리는 안내

자신과 달라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라면 드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혐오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작정 ‘친하게 지내는 것’ 역시 공허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보다 나와 다른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지도하면 좋을까요.

수업 1에서는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뒷이야기도 상상해보며 책에 더욱 깊게 다가갑니다.

수업 2에서는 그림책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먼저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프레드에 비춰보며 자신을 들여다보고,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 선생님께 드리는 안내

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소니아에 비추어 생각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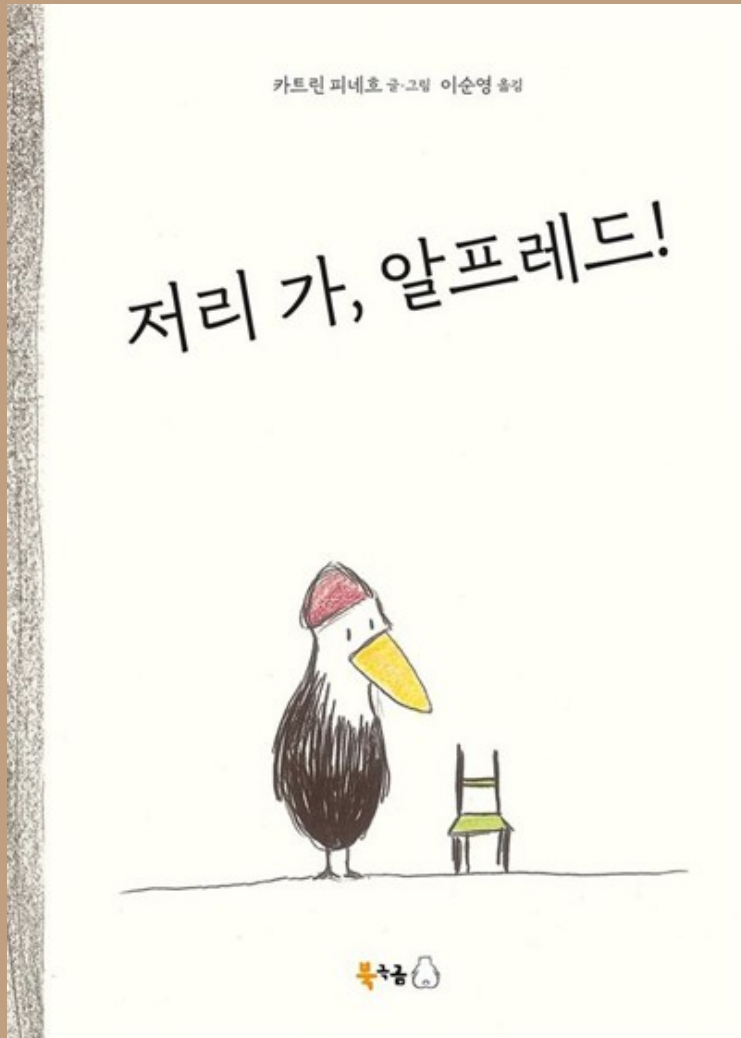
활동 3에서는 사회과와 연계하여 알프레드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있는 '난민'에 대하여 조사학습을 통해 알아봅니다. 이어서 가상의 난민 또래와 펜팔(pen pal)을 맺는 상황을 가정하여 편지를 써보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기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급 상황과 수업 계획에 따라 3개의 수업으로 본 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1과 활동2를 묶어 자기반성과 다양성 존중에 초점을 맞추시거나  
활동1과 활동3을 묶어 이 책을 난민에 대한 공감의 출발점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읽기 전 활동)



## 『저리가, 알프레드!』

(글, 그림 카트린 피네호, 이순영 옮김)

집을 잃은 알프레드는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저리가, 알프레드!" 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왜 알프레드는 집을 잃었을까요?  
다른 새들은 알프레드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알프레드는 과연 쉴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시작하기 전에...(읽기 전 활동)

어떤 사람들이 보이나요?



이 사람들 중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첫 번째 활동

## 알프레드와 소니아 이야기



# 첫 번째 활동. 알프레드와 소니아 이야기

알프레드와 소니아의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소니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 첫 번째 활동. 알프레드와 소니아 이야기

대화를 보고 알프레드의 표정을 상상해봅시다.

소니아:  
그럼 어떤 기분이었니?

표정을  
상상해  
봅시다.



# 첫 번째 활동. 알프레드와 소니아 이야기

뒷이야기의 장면을 상상하여 그려봅시다.

알프레드는 집을 찾았을까?

알프레드는 어디로 갔을까?

알프레드는 누구를 만났을까?



# 첫 번째 활동. 알프레드와 소니아 이야기

뒷이야기의 장면을 상상하여 그려봅시다.





# 두 번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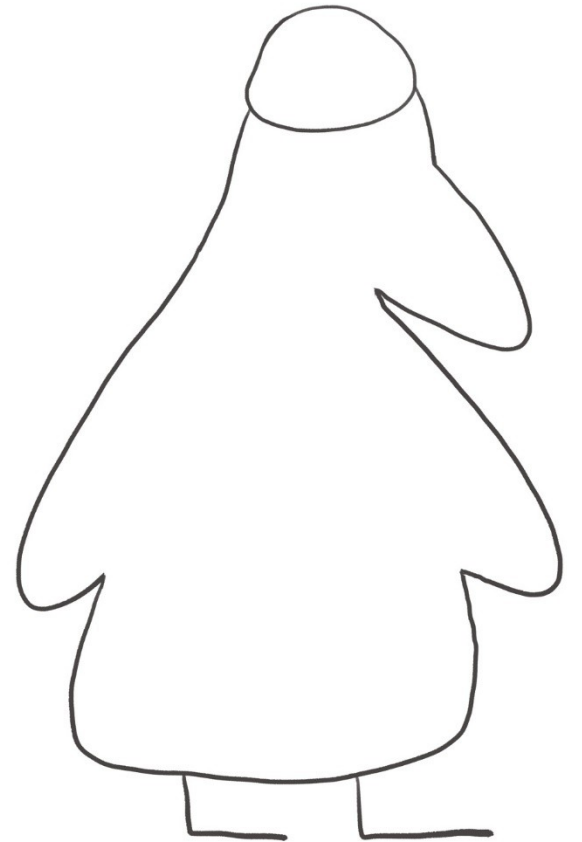
내 곁에도 알프레드가 있나요?



## 두 번째 활동. 내 곁에도 알프레드가 있나요?

다음 물음을 생각하며 활동지에 알프레드를 표현해봅시다.

- (1) 나는 어떤 사람에게 "저리가!"라고 말할 것 같은지 생각해봅시다.
- (2) 나만의 알프레드를 **'꾸며주는 말'**을 적어봅시다.  
(예시: 예민한, 둔한, 활동적인, 조용한 ...)



## 두 번째 활동. 내 곁에도 알프레드가 있나요?

다른 친구의 알프레드와 나의 알프레드는 같은가요?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서로 달라요.



## 두 번째 활동. 내 곁에도 알프레드가 있나요?

만약 소니아라면 나만의 알프레드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소니아:



## 두 번째 활동. 내 곁에도 알프레드가 있나요?

만약 소니아라면 나만의 알프레드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친구들과 함께 발표해봅시다.

소니아:

너는 나와 다르게 무척 활발한 사람이구나.

나랑은 다르지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통할지도 몰라.



#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정말 많아요.  
달라도 “저리 가!”라고 하기보단 먼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D



# 세 번째 활동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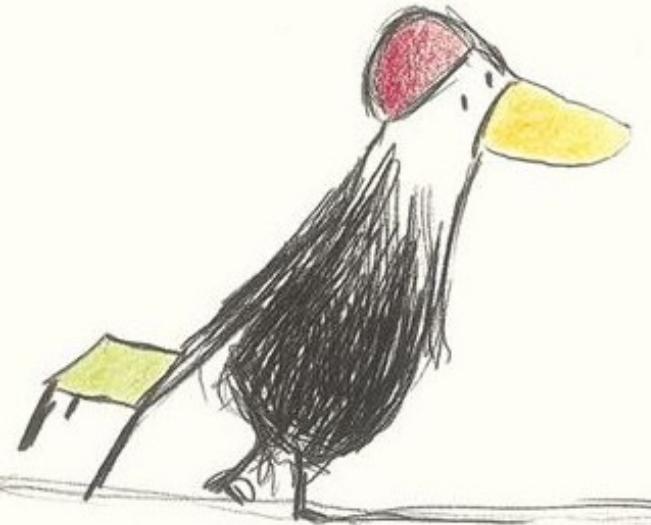
## 세계 속의 알프레드, 난민



## 세 번째 활동. 세계 속의 알프레드, 난민 (심화활동)

알프레드가 집으로부터 쫓겨나 떠돈 것처럼,  
세계에도 자기나라를 떠나서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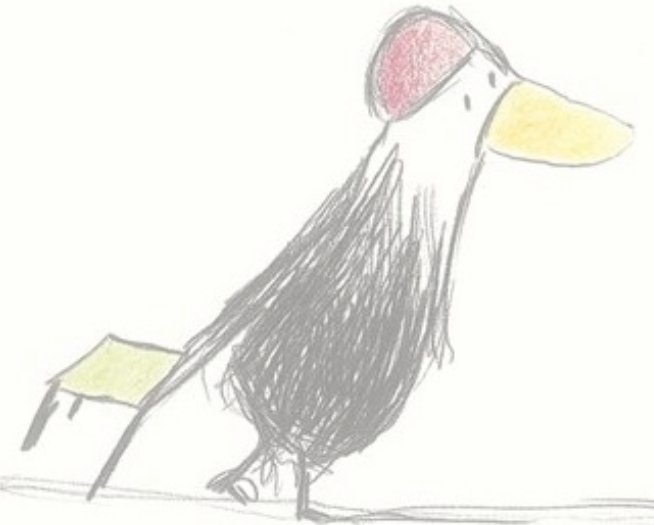
이들을 ‘난민’이라고 해요.



## 세 번째 활동. 세계 속의 알프레드, 난민 (심화활동)

다음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조사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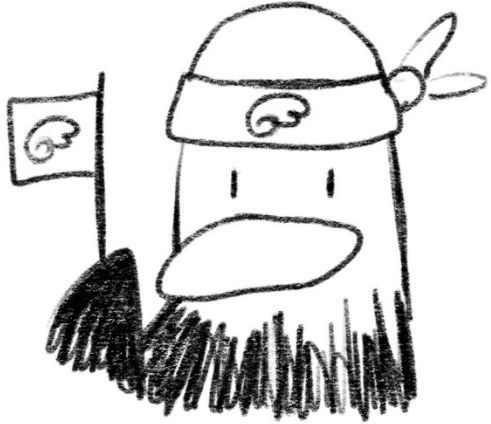
- (1) 난민들은 왜 자기나라에서 떠나서 살게 되었나요?
- (2) 난민들은 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 (3) 난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봅시다.

# 세 번째 활동. 세계 속의 알프레드, 난민 (심화활동)

친구 1명을 선택하여 공감과 이해의 편지를 써봅시다.



고고

안녕? 내 이름은 고고. 나는 ‘ 짹짹나라 ’에서 왔어.  
‘ 짹짹나라 ’는 사람들을 아주 억압해.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나의 인권을 보장받고 싶었어. 그래서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시위를 했는데 글썄 정부와 군대가 우리를 막 쏘고 감옥으로 잡아가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결국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왔어.



노노

안녕? 내 이름은 노노야. 대한민국으로 온 지는 3년 됐어.  
사실 나는 난민인데, 우리 가족의 종교 때문에 너무 많은 협박을 받아서 여기로 오게 되었어.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 말은 못하겠어.  
나와 우리 가족은 ‘ 별별교 ’를 믿어. 하지만 ‘ 달달교 ’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못마땅하나 봐. 계속 거기에 있다가는 정말 큰일날 것 같아 가족들과 함께 여기로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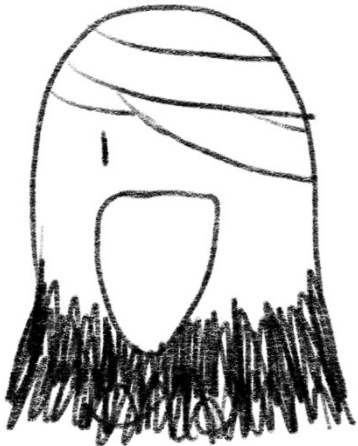
# 세 번째 활동. 세계 속의 알프레드, 난민 (심화활동)

친구 1 명을 선택하여 공감과 이해의 편지를 써봅시다.



도도

안녕? 내 이름 도도야. 난 '꼬꼬나라'에서 태어났어. 대한민국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어. 나는 어릴 때부터 무시를 당했어. 내가 좀 다르게 생겼구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꼬꼬나라' 분위기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나같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심지어 위협까지 하더라고... 풍경은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까?



로로

안녕? 나는 로로라고 해. 내가 살던 '꾸꾸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에 오게 되었어. '꾸꾸나라'에는 날개족과 부리족이 있는데 5년 전에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 날개족의 어린이들은 다 총을 들었어야 했지. 난 총을 처음 쏜 그 날부터 악몽을 계속 꾸고 있어. 아직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잘 지내고 싶어.